

2017년 5월 26일, 성산읍 오조리 오조리사무소, 송정희 조사.
신춘자(여, 1944년생, 성산읍 오조리)

- 줄거리: 밑이 없는 귀신을 모녀가 같이 본 이야기이다.

[제보자] 종달리서 한인호가 실지로 봤던. 밤에 이제 막 듬북을 허레 가는다. 자기 어머니 영 이제 갓는데. 시커멍헌이 사름이 엄마가 허는 말이

“야 너 고사 그 귀신 안 봤나?”

허난.

“어머니도 봄데가?”

“응.”

“나도 봤수다.”

허난.

“어머니도 보안?”

허난.

“응. 기여.”

“게난 겁 안 납데가?”

“훔마 나 겁나네. 물더레 끊어가카부덴 허난 안 끊어간 제우 살안 나왓저.”

“난야 봐도야. 그걸 귀신인가 헤여네 정신 똑바로 출련에. 막 듬북 허당 보난,
어떻 안 협디다.”

경 헌 말 들어졌수다.

[조사자] 같이 잇었던 건 아니마씨? 따로 잇어난.

[제보자] 아니. 요디 살아. 종달리 사름인디.

[조사자] 경 헹 아팟저 허는 얘긴?

[제보자] 아니 아팟덴 안 혀. 자기가 뭐허니깐 자기 엄마는 놀래가지고 물에 빠질 뻔해서
와 버렸는데. 딸은 그것을 이겨낸 모양이라.

- 핵심어 : 귀신, 듬북, 물, 종달리, 모녀